

숲과 음악

김 기 원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

예 숲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 아름다움은 자연에서부터 출발한다. 예술은 곧 자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음악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숲 속에는 무진장한 음향적 재료가 숨넨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새 울음 소리, 개울물 소리, 나뭇잎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 등등...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 음향적 재료로서의 자연의 소리 자체를 하나의 완성된 음악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어쨌든 숲 속에는 자연의 소리(자연음)가 있다. 음악가들은 숲 속의 이런 소리와 정경을 뽑아내어 물레로 비단실을 잣듯이 악곡으로 완성하였다. 음악 작품 중에는 숲 속에 있는 새소리나 물소리, 바람 소리 등을 직접 악기로 사용한 예가 허다하다.

음악 작품에 자연의 소리를 도입하는 방법인 자연회화법 혹은 자연묘사법은 바로크 시대의 비발디(1675~1741)에서 비롯되어 고전 시대의 헨델(1685~1759)과 하이든(1732~1809)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가와 그들의 작품을 관찰해 보면 자연과 숲에서 얻은 악상으로 불후의 명곡을 작곡한 예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비발디·하이든·베토벤·슈트라우스·레스피기·쇼스타코비치 등 많은 음악가들이 그러했는데, 이들은 때로

자연 전체, 혹은 특정한 산이나 숲, 또는 한 그루의 나무나 풀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악상을 주제나 모티브로 삼아 다양한 형식의 음악작품을 만들어 냈다.

또 산을 표제로 붙이거나 산의 정경을 묘사한 음악가들도 있다. 국민과 음악가 리스트(산악교향곡), 후기낭만파 음악가 댕디(프랑스 산사람의 노래에 의한 교향곡), 인상파 음악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알프스교향곡), 현대음악가 그로페(그랜드캐니언), 코플랜드(에팔래치아의 봄) 등이 대표적이다.

로시니·슈만·요한 스트라우스·요셉 슈트라우스·생상스·차이코프스키·레스피기·스트라빈스키·시벨리우스 등은 나무나 풀, 꽃, 새 등 숲 속의 동식물을 주제로 삼아 표현하기도 하였다.

숲을 표제로 하여 창작한 대표적인 음악가로는 요한 슈트라우스·차이코프스키·쇼스타코비치 등이 있다. 요한 슈트라우스에게 있



어서 숲은 낭만과 환희와 사랑, 그 모든 것이었다. 그의 작품 ‘빈 숲 속의 이야기’는 숲을 가장 정열적이고 희망적이며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작품일 것이다.

숲과 관련하여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던 소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냥이다. 숲속에서의 사냥 장면이 창작에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사냥 중의 각종 신호 소리, 숲 속에서 울리는 총성이나 혹은 사냥꾼들의 떠드는 소리들에 의한 메아리가 숲의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묘하게 잘 나타내주는 음악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숲 속에서의 신호를 위해서는 대부분 발트호른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호른의 목직한 음색이 숲의 분위기에 썩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베버의 ‘마탄의 사수’에서 감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전래동요 중에 나무를 노래한 것으로 ‘나무타령’과 ‘가자가자 갓나무’ 등 두 곡이 있는데 제목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나무타령’의 가사는 무척 재미있고 기발하다. “청명한식에 나무 심으러 가자, 무슨 나무 심을래, 십리 절반 오리나무, 열의 갑절 스무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방귀뀌어 뽕나무, 오자마자 가래나무, 깔고 앉아 구기자나무, 거짓 없어 참나무, 그렇다고 치자나무, 칼로 베어 피나무, 네편 내편 양편나무, 입맞추어 쪽나무, 양반골에 상나무, 너하고 나하고 살구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내 발두렁에 내나무...”.

‘나무타령’이나 ‘가자가자 갓나무’의 노랫말은 어린아이들의 거리개념 형성을 자극하며, 자연학습 효과의 유머감각(방귀 뽕뽕 뽕나무)까지 키워줄 수 있는 즐거운 노래놀이의 하나이다.

전통음악인 창이나 판소리 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판소리 여섯 마당의 하나인 ‘변강쇠전’에 나무 이름이 많이 등장한

다. 용녀의 청으로 변강쇠가 산으로 땀감하러 가서 벨 나무를 고르는 대목을 중몰이로 표현하는데, 오동나무·살구나무·소나무·잣나무·밤나무·전나무·가시나무·참나무 등이 등장한다.

나무는 악기이다. 나무줄기에 귀를 대고 들어보면 신비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다. 나뭇가지 끝은 하늘로 향해 뻗어 있는 안테나 이니 그 안테나를 통해 줄기를 타고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나무의 소리요, 자연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이다. 그래서 헛세는 “나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이, 그는 이미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이”라고 표현한 것이리라.

이처럼 나무는 싫지 않은 소리를 내어 귀를 즐겁게 하니 분명 악기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숲은 무엇인가. 숲은 콘서트홀이다.

어지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숲 속의 공기로 인하여 진정된다. 베토벤이 그랬고, 슈트라우스가 그랬다. 거칠고 사나운 난파장의 음을 나무조직 속에서 걸러지고, 향판과 공명판을 통해서 조율된다. 바이올린 현이 만들어내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멜로디도 나무로 된 공명상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다. 성나고 분하고 격한 감정도 숲을 지나는 쾌락한 바람에 일거에 삭여질 수 있고, 찢어지고 깨지고 날카로운 소리도 미로의 나뭇결 속에서 조탁될 수 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뽕아낸 것이 인간세상을 바뀐놓은 비단문화이다. 음악가가 숲의 정기를 받아 창조한 것이 음악예술이요, 음악문화이다. 아름답고 고운 나뭇결 속에서부터 음이 조율되며, 깊고 울창한 숲 속으로부터 음악이 잉태된다. 숲은 음악예술의 영혼이 숨쉬는 곳이다.